



바로크 거장의 울림, 합창으로 피어나다

18일 광주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바로크의 거장, 비발디와 헨델을 만나다’

바로크 시대 두 거장의 음악이 합창과 고약기 울림 속에서 되살아난다.

광주시립합창단(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임창은)은 오는 18일 오후 7시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제20회 정기연주회 ‘바로크의 거장, 비발디와 헨델을 만나다’를 선보인다.

바로크 합창음악의 정수를 온전히 감상할 수 있는 연말 특별 무대이다. 바로크를 대표하는 두 거장의 대표작을 한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자리다.

이번 연주에서는 헨델의 ‘Dixit Dominus in G Minor, HWV 232’와 비발디의 ‘Gloria in D Maj

고약기 양상불과 함께 입체적 음향선사

금관5중주 콘서트·퍼포먼스 등 이벤트도

or, RV 580’가 연주된다.

두 작품은 영국과 이탈리아 바로크 음악의 성격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결작으로 강렬한 대비와 역동적인 리듬, 세밀한 선율미가 돋보인다.

젊은 헨델 특유의 치밀한 대위법과 드라마틱 한 합창 구성이 돋보이는 ‘Dixit Dominus’, 밝고 경쾌한 음향 속 깊은 성찰이 서린 비발디의 ‘Gloria’는 널리 사랑받는 바로크 합창 레퍼토리로

손꼽힌다.

협연으로 함께하는 카메라타 앤틀리아 서울(C ammerata Antiqua Seoul)은 국내 대표 바로크 전문 연주단체다. 역사적 연주(HIP: Historically Informed Performance) 방식으로 고약기 음향과 해석을 정교하게 구현해 왔다. 국내외 주요 바로크 음악 축제에 초청받는 등 국내외 전문가들의 신뢰를 받아온 양상불이기도 하다. 광주시립합창단의 풍성한 합창 사운드와 함께 바로크 시대 성당을 떠올리게 하는 깊고 입체적인 음향을 들려줄 예정이다.

공연장에서는 특별 이벤트도 마련된다. 금관 5중주 ‘브래싱(BRASSING)’이 로비에서 미니 콘서트를 진행하며, 바로크 시대 의상을 착용한 배우들이 관객을 맞이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진

다. 공연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바로크 시대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하는 것이 이번 무대의 큰 특징이다.

임창은 예술감독은 “올 한 해 다양한 무대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영감을 얻었다”며 “이번 바로크 연주회를 끝으로 2025년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또 다른 감동과 도전으로 시민들을 찾겠다”고 말했다.

예매는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와 티켓링크 (1588-7890)를 통해 가능하며, 전석 1만원이다.

한편 광주시립합창단은 올 한해 ‘청구야~노을~자’, ‘피터팬과 후크선장’, 광복 80주년 기념 ‘Song of Arirang’ 등 장르와 세대를 넘나드는 공연으로 합창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왔다.

/최명진 기자

아르플래닛x이이남 콜라보…융복합 피아노콘서트 ‘빛의 울림’

내일 전남대 민주마루서 공연

전남대 대학원 연구·정책 선정작

지역 청년 예술인과 세계적인 미디어아티스트가 함께하는 특별한 융복합 공연이 펼쳐진다.

‘빛의 울림 - 이이남×융복합 피아노 콘서트’가 오는 17일 오후 7시30분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전남대 대학원 G-ROOT(지역 사회 연계 혁신연구 지원사업) 선정작으로,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과 공연기획자이자 ‘아르플래닛’(ARPLANET) 대표인 최혜지가 공동 기획한다. 낭만주의 주요 피아노 레퍼토리에 미디어아트 영상을 결합해 감각적 무대를 선보일 예정으로 지역 청년예술인의 창작 환경을 주제로 한 융복합 프로젝트다.

기획을 총괄한 최혜지는 전남대 일반대학원

음악학과 석사과정 재학생으로, 청년예술인의 상설 무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술단체 ‘아르플래닛’을 창단해 14회 이상의 공연을 기획·연출해왔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사업 선정부터 협업 조율, 홍보·브랜딩, 무대 연출, 연주까지 전 과정을 직접 맡아 진행한다.

협업 아티스트로 참여한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은 전통 회화와 명화를 디지털로 재해석해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으며, 최근 2025 APEC

정상회의 공식 프로그램에도 작품을 출품했다. 그는 지역 청년 예술인이 스스로 무대를 만드는 시도의 필요성에 공감해 이번 협업에 함께했다.

공연 해설은 전남대 음악학과 박은식 교수가 맡아 작품의 역사·구성과 음악적 해석을 제공한다. 무대에는 전남대 대학원 재학생인 김수진 (쇼팽 ‘발라드 3번’), 최혜지(브람스 ‘6개의 소품’ Op.118), 이서영(슈만 ‘환상소곡집’ Op.12)이 오른다. 이들의 연주와 함께 이이남 작가의 미디어아트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돼 음악·빛·색채가 어우러진 융복합 퍼포먼스를 완성한다.

/최명진 기자

‘5개 국립과학관.zip’…자체 개발 전시품 한자리

국립광주과학관, 21일까지 공동 성과전

5개 국립과학관의 자체 개발 전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립광주과학관은 오는 21일까지 공동 성과전시회 ‘5개 국립과학관.zip’을 진행한다.

국립광주과학관이 주최하고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

산과학관이 공동 참여한 이번 전시는 각 기관의 연구개발 역량이 담긴 전시품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기획됐다. 다른 지역 과학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저마다 특색 있는 전시품을 압축 파일(zip)을 풀듯 한 번에 체험할 수 있다. 5개 과학관을 상징하는 ‘랩(Lab, 연구실)’ 공간으로 구성됐으며, 각 과학관에서 자체 개발한 전시품 3~5점씩을 선보인다. (사진)



전시품은 운동 잔상, 액체 자석, 각운동량 보존 등 기초과학 체험부터 코딩 기술 기반 콘텐츠까지 다양한 주제로 제작됐으며 해설패널을

통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5개 국립과학관 위치를 표시한 친환경 지도형 포토존도 설치됐다.

/최명진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불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철단지국 971-7374
- 치평지국 371-9584
- 수원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목포지사 061)278-0740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강릉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